대학원생세미나 14.02.20

Rosenau, Pauline Marie. Post-modernism and the social sciences: Insights, inroads, and intrus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발제: 이재현)

이재현: 리오타르, 포스트모던한 입장에서 포스트모던을 인식하겠다는 입장. 포스트모던의 조건 하에서 인식. 로즈노의 방식으로 이해하면 객관성 없고, 지식인 척 하는 것임. 포스트모던의 방식으로 포스트모던의 인식이 가능한지?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던니스트들 사이에서도 논쟁 존재. 로즈노의 방식으로는 존재 해야 하는 것임.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동의할 까? 포스트모던이 ~~하다라고 정의 내릴 때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 구조주의, 근대/탈구조주의 탈근대적인 것도 아님. 후기 구조주의로 번역. 가운데 걸리는데, 정확한 선이 무엇인지 불분명.

전재성: post-structuralism는 후기구조주의 or 탈구조주의로 번역됨. 후설의 등장은 1920년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도 1930년대임. 니체와 후설을 기점으로 잡으면. 칸트가 최초의 구성주의자로 명명. 선험적 주체가 초월적으로 존재한 상태에서 타고난 도식으로 주어진 대상을 구성해나가는 것으로 경험론 대 합리론의 인식론적 대결을 해결했다고 보는데 니체, 후설이 동시에 등장. 후설, 칸트 식으로 도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 돌아가서 구성해야 한다는 논리. 20세기 초는 현상학이 장악. 레비나스를 통해 후설 번역. 데리다로 넘어가서 1940-50년대 구조주의 대 현상학의 바람이 들어감. 메를로 퐁티가 1950년대 구조주의로 전환함. 데리다, 라깡. 개인의 실존으로 사회를 보는 것이 맞지 않다. 실존주의가 진행되다가 구조주의의 바람, 1940-50년대. 전부 언어학적인 충격이었음. 1942년 기호학과 구조주의 통합. 야콥슨. 1940-50년대 구조주의. 굉장히 실증주의적임. 경험적 data에 의존하진 않지만 실증주의는 객관적 지식이 있다고 봄. 구조 등 우리가 발견가능한 구조가 있다. 인류 사회, 언어 속, 인간의 무의식에도 다 역사적으로 단층화된 구조다. 어느 시대나 공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구조주의가 20년 간 풍미하다가 후기, 푸코의 후반부와 데리다의 작품들이 나옴. 구조주의가 가진 객관주의, 실증주의적 진리관에 대한 도전. 가장 큰 고민, 구조를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주체는 뭐냐? 주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데 주체 빼고 생각 가능? 주체가 변모되는 process가 설명이 안 됨. 라캉, 객관주의와 데리다 사이 쯤에 있음. 데리다 vs 라깡. 데리다는 더 해체주의적. 라깡은 상징계의 영향을 받는 상상계의 무의식의 구조가 있다고 봄.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는 상당히 다름. 공유하는 구조의 중요성은 있지만 후기 구조주의는 주체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주체가 구조의 객관적 효과로 밀어버리진 않음. 레비스트로스처럼 철학이 의미없다고 보지 않음. 주체의 무의식, 주체가 사용하는 언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주체성. 주체를 구성하는 매커니즘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구조/행위자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들을 기울이게 되는 것임.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 1970-90년대까지는 후기 구조주의가 20년 정도 펼쳐짐. 그것이 큰 의미에서의 구조주의의 모더니즘적 경향. 후설도 진리론을 포기하지 않음. 여기서 가진 것, 구조주의 비판과 객관주의적인 선험철학을 비판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임. 후기 구조주의자이자 후기 후설주의자로서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너니즘이 더 큰 개념인 듯. 후기구조주의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 주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 재현의 문제, 푸코가 생각하는 권력관계, 데리다의 언어철학 등이 재미있음.

포스트모더니즘을 사회과학, 국제정치학에 어떻게 가져오는지?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해보려고 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사실 스스로 포스트모던적으로 살아야 함. 포스트모던 것은 이런 것이라는 정의 내리려는 것 자체가 모던적임. 국제정치도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나? 그렇게 까지 가야하는지? 언어가 어느 정보 보편적 representation으로 보느냐, 은유, 환유도 상이한 언어게임이 있음. 메타적 언어게임이 없는 다수의 언어게임으로 볼 것인가? 너무 해체로 가니까 리꾀르는 다시 해석학으로 돌아감. 얼마든지 후기구조주의를 파악한 해석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진리의 실용주의적 유용성으로 가는 견해. 이를 극복해보려는 시도 들이 있음.

그 중의 하나는 Embodimentalism. deconstruction이후에 reconstruction으로 갈 것인지? 후기 구조주의의 항목들을 이야기해볼 수도 있음. IR도 언어를 representational하게 보고 객관적인 logic을 담은 것처럼, 현상의 진리가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언어와 국제정치의 관계는 은유, 환유로만 연결되어 있으므로 재현을 가장한 은유게임임. 현실은 다른데. 유용성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science로 올려놓는 것은 그 자체로 테러리즘이다. 실증적인 것은 문제는 아닌데 실증주의자들은 문제다.

최인호? 정확하게 포스트모던적으로 사는 것이 뭐냐? 전혀 다른 분절된, 단절적 경험세계에서 그 때 그 때의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것. 사회적 책임을 버림. 나를 구성하는 사회적 속성, 구조에 이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당장의 처지에서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내가 사는 공간에서 그런 식으로 전회를 했을 때 어떻게? 포스트모던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화두. 그것이랑 비슷한 듯. 불교수행을 하면서도 선승들의 수행방식은 그것을 play를 하면서 깨우침. 제도화된 불교의 문화, 우상 등을 갖고 노는 것에서 깨달음을 얻음. 고정된 것이 없음.

전재성: 그런 생각. 레비스트로스, 인류학의 문제를 공부하면서 철학을 품. 인류학이 아무 것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empirical study도 많이 함. 다 empirical한 사회학자임. 그게 하나의 프랑스식 교육 인 듯. Empirical한 것에서 이론화, 일반화된 것을 간 다음에 이론화 해야 하는데. 내 삶의 고민에 먼저들어가서 내가 경험한 국제정치의 적나라한 empirical에서 파생되는 이론이 포스트모던과 포스트모던과 연관되어서 가야 함. 내가 경험한 국제정치학, 나의 이론화 과정이 포스트모던보다 더 문제를 잘 푼다고 할 때... 그럼 철학에서 못 푸는게 국제정치학으로 풀 수가 있나?

주체는 없다. 주체가 다 없으면 정치란 뭐냐? 만인에 대한 만인의 비판이다? 그게 맞는 것인가? 개인, 단층화되어 있음.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구성된 것. 자아는 파고 들어가면 공허한 것, 실체가 없음. 그게 이론화된 명제. 철학자들이 보는 자아의 진리임. 보통인들은 주체가 있다고 함. 그게 있다고 분석하는 것은 다름. 주체가 없다고 보는 철학자들의 논증과 왜 우리는 주체감을 갖고 살아가는지? 너무 소중한 것. 권력극대화, modern자아관. 인간의 진화과정에서 있을 수 밖에 없음. 그 현상이 왜 자아감을 갖고 발생하는지를 설명해야 함. 자연적 태도. 왜 그렇게 사는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는 것과 철학은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가? 화두. 그것을 깨라는 규범적 명제임. 우리는 규범적 명제를 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석해야 함. 포스트모던의 해체론이 규범적인 것도 있음. Affirmative는 그런 주체관을 깔지만 marginalized된 것을 복원하면서 규범적으로 나은 주체성을 갖도록 하고. 리쾨르, 현상학자들을 다시 보는 것. 그것도 하나의 관, 포스트 모던도 하나의 관임. 인간은 그렇게 안 산다. 현상대로 자아를 가는 것임.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나? 주체가 없어야 한다는 당위론과 주체의 자기의식에는 주체가 있다고 보는 감안한 분석이 필요.

최인호: 마단 사럽 책. 실제의 경로를 연관시키게 됨. 이것을 일종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한 것은 읽기. 텍스트 독해방식을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행위다. X표, 말소를 하고 기존의 담론들을 해체하는 작업을 함. 그것들을 더욱 실험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도 포스트모던적인 삶이 무엇인가의 방법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인지?

전재성: 모던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됨. 기본 전제가 다름. 소쉬르만 해도 기표, 기의의 짜여진 구조가 있다고 봄. 기표-기의 사이의 부정합성을 상정하는 것은 아님. 기표 간의 구조가 너무 확고해서 기의를 규정함. 데리다는 더 나아가서 기표-기의 사이의 1:1관계가 아니라고 봄. 너무 알 수 없는, 실재계와 같이 slippery라는 존재. 언어의 기표의 차이성. 뭔가를 기표한다는 것, 대상과의 정합성. 기표들 간의 차이에 의해서 정체성이 결정. 하나를 정의 해놓고 이와 대비되는 맥락이 나오면 또 틀려지고 틀려지는 것처럼 언어가 전개. 인간의 주체도 타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다가 앞의 나는 지워지고 새로운 나가 만들어짐. 유동적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비동일적 연속성”이라고 불교에서는 지칭. 그래도 나는 나다라는 감각을 왜 갖는가? 이를 버릴 수 있나? 환상일 수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갖고 있는 인간이 많을까? 말도 안 되는 욕망을 계속 feed함. 어디로 나가야 하나? 주체 없다고 교육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주체들 간에 서로 착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가?

송지예: 더 기본적인 의문. 포스트모던적 학자? 나는 지식전달, 매체의 수단자? 지식은 변할 수 있는데 지식에 필요한 것을 생산할 뿐? 지식의 절대성을 부정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의미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듯. 그런 면에서 데리다, 라깡, 푸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대상에 대한 결과물인 듯. 실천만이 남는다? 기표든 기의 든 불분명. 각 사람의 인간관, 진리관. 내가 무언가를 탐구하고자 하는 방법만 남는 것이 아닌가? 국제정치학이 다른 학문에 영향을 주는 무언가가 있으려면, 국가라는 전제 자체가 다른 철학에서 더 간 것. 정말 포스트모던적으로 가기 위해선 국제정치학과 만나지 못하는 접점이 있음. 포스트모더니스트들 사이에서는 포스트모던 해야 진리, 진짜, 윤리인 것. 국제정치학은 그런 점에서 못 만나는 것인가? Reflective turn을 해야 하는데. 주체는 남아있지 않음. 계속 후퇴. 주장하고자 하는 것.

전재성: 국제정치적 모던개념이 다름. 여기서의 포스트모던은 근본적임. 조직원리가 모던에서 포스트모던으로 가기보다는 존재론적인 차원이 다름. 개인으로 나눔. 이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관된 국제정치? 개인의 삶과 기본적 국가론부터 이야기해야 함. Apparatus, 국가권력, 미세권력론 등. 국제정치는 여기까지 복잡한 생각은 안 함. 이런 국제정치학 이론가들로 가져오는 이론가들은 소수임. 사회학자들도 그러함.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적 층위가 있음. 모던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깨는 층위가 있음. 현실에서 정말 존재하는 것은 뭐냐? 구조라는 것은 진짜 있는지, 개체라는 것은 진짜 있는지? 인식론과는 별개임. 그것 나름의 개념이 있고, 언어관에 관한 중요한 물음이 있음. 규범론이 있음.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정말 있는 것인지? 그것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정치적 입장이 없다고 함. Reconstructive한 입장도 개별 필자들마다 강조점 다름. 그 포스트모더니즘을 가져온다는 것은 다시 개인으로 와서 개인은 있냐의 존재론적 물음부터 물어야 함. 개인은 있는지 아는 인식론적 질문으로 파악해야. 인식론적 입장도 물어야 하고. 포스트 베스트 팔렌적인 것으로 가려면 많은 단계가 있음. 우리는 막연, Waltz류의 인식론, 존재론, 규범론이 깔려있는데 분석할 툴이 없음.

인간의 독재성, 착각은 개인의 존재에 대한 상당한 가정이 있음. 언어사용, 객체의 존재가능성 등을 가정하고 사용함. 기본적으로 모던함. 국제정치를 표상하고 있는 것인가? 국제정치를 본 사람의 언어게임적임. 언어게임. 국제정치적 현상을 그림그린 것뿐임.

옥창준: 천하, 천하 자체를 이해해야 함. 서양은 객체를 통해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음. 노자의 이용. 글쓰기도 꼬고, 글쓰기 방식의 혁신. 기존의 지식과는 다름.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를 시도. 그것들이 포스트모던 학자가 아닌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것이 진실을 모르고. 진실임에도 삶의 관성 때문에 안 바뀜. 그런 상황에서 더욱 혼란스러움. 학자들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것을 아닌 사람들, 그것을 계몽을 깨우쳐줘야 하는 것인지 그런 상황 자체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수탈이 없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저의 사람도 포스트모던한 사람인가? 마력은 있음. 글을 읽어보면 매혹적인데 끊임없이 그래도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모던한 사람이다? 그런 식의 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최인호: 자기경험에서 비롯된 것. 경험에서 더욱 확실하게 느끼고, 거기서부터 기존의 어떤 담론들을 피해서 사고할 수 있게 하는 것. 해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음. 그렇게 만드는 도구가 있나? 반성을 강조. 반성을 넘어선 strong reflexivity를 만들어야 한다. IR학자들이 자신들의 biography를 쓰면서 어떻게 이론으로 나아갔는지를 쓴 것이 있음.

전재성: 국제정치적으로 살아온 것. 사회적으로 자아가 있다는 개인들의 network의 속도가 있음. 거울단계에서 상상계-상징계로 들어감. 외부의 기호가 막 들어와서 너는 이런 애야. 몸으로 확 굳어진 채로 30년을 살다가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 빨리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30년보다 빨라야 함. 사회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강도는 지속됨. 인간이 그 자신이 구성되었고, 구성되어가는 과정을 되돌릴 정도로 노력의 크기는 굉장히 큼. 굉장히 어설프게 됨. 포스트모던을 모던하게 이해하는 것. 포스트모던적 진리라는 것도 없음. 나도 여전히 모던적임. 포스트모던이 살아남아서 내놓는 진리라는 것은 뭘까? 근본적인 문제제기들을 하는 체계들은 많음. 불교, 진화론 등 근본적 질문들을 받게 됨. 모든 질문들, 이를 반성할 수 있을 수준의 상당한 속도, 내공이 있는 상태에서 내 것을 내 놓기 위해선 많은 노력 필요.

이재현: 반구성적 구성력? 그런 능력? 개인의 biography정리 필요. 내가 실제로 가진 기억이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copy & paste해서 다시 표상함.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구성하는 면모가 있음. 나에 대해서 침묵해야 하는 방식? 나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선. 이는 거부할 수 없는 부정임.

전재성: 기억이 떠오를 공간이 있어도 됨. 지나간 것들이 다시 복구가 됨. 옛날에 이랬다. 내가 나를 구성했던 부분을 반구성하는 부분의 여유를 찾기 위해선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찾아나가야 함. 오늘부터 구성되는 부분을 monitor하면서 구성해가야 함. 다시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매 순간, 살아가는 것과 살아가는 자아를 보는 자아를 놔둬야 함.

데리다-선불교도 연결 잘 됨. 국제정치. 여러가지 Johnson과 레이코프의 이야기. 언어가 있음. 천문. 점이 천문의 흐름과 연결. 10개의 별자리와 12개의 행성을 인생의 사주팔자로 품. 둘 사이엔 아무 인과관계가 없고 synchronize된 것임. 천문의 전개양상과 나의 삶이 싱크로나이즈. 이 틀을 언어라고 한다면? 내 삶이 언어의 논리와 비슷하게 간다는 것임. 언어는 내 삶이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언어게임도 존재. 미술을 시각적 medium나름의 논리가 있음. Shape도 내 삶을 나름의 그림으로 감. Message는 medium이다. 이 형식 자체가 나를 규정. 언어는 특별한가? 언어도 나름의 언어게임에 불과. 언어체계가 나의 삶의 체계와 맞으리라는 것도 없음. 언어에 끼워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언어도 수학적 언어로 바꿔서 실증주의적 언어로 바꾼 뒤에 나의 삶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실증주의임. 그 환유가 맞는지는 레이코프, 존슨은 몸의 언어. 내 몸에서 체험된 여러 양상이 언어와 연결된다고 봄. 국제정치학적인 언어는? 국제정치학적 삶을 사는 사람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어떤 언어와 가장 적합성 있는지 봐야 함. 폭력이 있는 것. 국제정치의 장에서 벌어지는 The reality. 물자체의 실재계. 뭉치로서의 현상 자체는 다른 삶의 현상과 달리 폭력이 결합되고 범위도 넓음. 다문화적인 사회현상이므로 이를 몸적으로 체험하고 있다면 거기서 파생된 언어게임이 있을 것임. 국제정치를 theorize할 때, 언어로 표현하듯 그림을 그리듯 그 국제정치학적 내적 논리, 내가 체화한 언어는 다를 것임. 자연과학적 언어와 사회과학적 언어가 다름. Jameson은 경험 자체에서 logic도 경험한다고 함.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도 비슷. act와중에 linguistic logic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봄. 국제정치현실에서 언어화된 언어게임의 logic은 없음. 국제정치, 폭력적 물질적 현상이 잘 나타남. 물질적으로 embedded된 network는 inter-subjectivity가 가장 강함. 가장 강한 몸의 영역이 있음. 포스트모더니즘도 가장 강한 육체. Marginalized된 것임. 국제정치현상을 폭력, 군사력, 경제적 억압까지 포괄적 인간현상을 직접 경험해서 ‘기술’, 먼저 empirical하게 현상 그 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것. 그 안에서 logic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나와야 함. 여기서 말하는 포스트모던의 공격에도 대응가능 할 것임. 그러한 우리가 가진 이점? 포괄성과 몸의 논리가 하나임.

포스트모던, 인간의 주체에 대한 과학적인 발견이 스며들지 않은 사람들임. 이 사람들의 고민. 해체하는 주체가 있다고 함. 데리다가 글을 쓰면 해체하고 글을 쓰는 주체는 비 데리다적임. 이는 포스트모던이 해결 못함. 상당 부분 그러한 모순. 그 정체성의 고민? 인지과학으로 가면 자아가 사실 없는데 자아가 없는데 있다고 믿게끔 하는 진화론적인 유용성을 설명. 자동기계로 감. 자기가 명령한 것처럼 감. 지식 유용함. 스스로 나의 몸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나의 의식을 나의 의식으로 여기는 매커니즘이 존재.

로보캅. 민스키의 논의의 인지과학 체계와 일치. 우리라는 몸이라는 수트 안에 우리의 의식이 들려있는 것임. 그 의식은 몸 위에 얹혀져서 가는 것인데, 완전히 다른 존재로 감. 너는 너가 나를 조종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야 라고 함. 의식의 허구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질문으로 감.

육체에 대해서 아무 작용하지는 않음. 가끔은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구성. 아직 인지과학이 해결 못하는 것은 의식과 몸의 관계의 사이임. 물질과 의식이라는 구분도 무의미하다. 인지과학도 물질/의식의 이분법을 갖고 연구해서 그런 것이지 근본적인 다른 매커니즘이 있을 듯. 국제정치학적인 장에서만 통용되는 logic을 만들어야 함. 페미니즘은 주변의 진리 복원을 목표로 하고 절대 진리 regime을 담는다는 것을 하지 않음. Localized를 복원하는 것만 된다. 여기서의 실용주의적 진리관과 맞닿음. Localized된 것이 복원되어서 만드는 사회 정도가 여기서 말하는 논리의 maximum인 듯. 우리가 국제정치적 작업을 할 때, 첫째의 목표, affirmative한 것은 non-western tun해서 월츠 식의 테러리즘적에서 사문화된 동아시아의 경험 복원. 여기서 descriptive한 것을 만드는 것. 더 데리앙 정도. 포스트모던 자체를 극복하는 새로운 reconstruction을 하는 것. 한국-일본의 완전한 empirical이다. 완전히 이 방법론으로 해야 포스트 모던의 것이다. 세 번째 목표, 그러면서 현상학-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기존의 존재론적인 문제 해결 가능한 부분. 약간의 니체의 글쓰기처럼 산만하지만 직관적인 글로 보완해야 함.

송지예: 국제정치의 논리. 국제정치에서의 상징계-상상계-실재계의 상상? 상상계, 권력추구적 욕망. 상징계는 그 사이의 기호들, G20, 중견국, 제 3세계 등. 이 사람들이 권력추구에 대한 욕망이 미끌어짐. 결과적으로 언어분석으로 가야 하나? 담론분석으로 우리를 표상, 각 국가를 표상,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표상하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권력추구 욕망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언어분석으로 갈 수 밖에 없나? 언어분석이 아니면 국제정치의 언어라는 것은 다른 방법론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전재성: 권력추구적 현상이라는 것은 실재하는 것임. 언어를 전혀 모르지만 원래 언어 없었던 존재임. 제스처나 시각적으로 만 소통해도 권력추구적이었음. 이를 설명해보라고 하면 국제정치적 그림을 그림. 그림 안에는 논리가 있음. 그림적 언어게임 안의 logic은 있음. 단순히 국제정치학이 post-modern, 실재는 없고 기표는 없다는 것은 기의가 없다는 것은 기표-기의 사이의 긴장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임. 언어 유무와 관계 없이 현상은 있음. Pre-기호적인 것, 상상계로 먼저 들어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이를 상징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함. 기존의 언어들을 쓰면 언어들 간의 inter-textual한 것이 있음. 그 안에 권력관계가 있음. 한국을 제 3세계로 부르는 순간, 이 언어게임을 어떻게 해결하냐? 실재가 없었다고 하는 것. 질문의 단계가 다름. 상상계적인 것은 좋은 idea인데, 보들리아드. 이미지화 되기 전에 실재가 있음. 그것은 모른다. 기호를 들이대 봐야 하는 것임. 그것이 맞는 것인지? 들이 대는 기호적인 부분 누가 더 정확한지의 게임? 표상들 간의 권력게임을 봐야.

송지예: Anarchy가 정확한 분석대상인가? 동아시아에서 쓸 수 있는 분석대상인가? Anarchy가 19세기 이후에 만난 것이라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라면 아나키로서 동아시아의 근대 이후의 IR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담론수준에서 분석용어 or 용어사용을 해야 하는가?

전재성: 개념사도 가고, 현실분석사도 가야 함. Anarchy는 hierarchy로 비교되는 부분도 있고, heterarchy도 있음. Anarchy는 상대개념을 생각해야 정의되는 것임. 비교국제사회학적임. 유럽의 경우만 중세의 hierarchy로 비교했는데, 동아시아는 원래 존재하던 hierarchy와 유럽의 anarchy와 hierarchy-anarchy만 보면 안 됨. 전형적 의미가 안 맞는다. 기표의 분석만 할 수도 있음. 역사적으로 삼국시대부터의 국제정치의 질서사를 보고 나름대로의 개념을 만들어야 함. 개념사적 작업과 진짜 역사작업을 같이 해야 함. 역사를 직접 봐야 함.

전재성: 개념-실재의 reality에 보면서 개념-실재의 긴장관계를 보는 것임. 개념은 역설적으로 개념화가 안 됨. 현실 변화하면서 개념이 변화하는 긴장관계를 보는 것임. 개념이 명확하면 개념사의 연구대상에서 벗어남. 현실변화와의 긴장관계를 일으키는 관계를 묘사해줘야 함. 개념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기 위해 개념을 보는 것임. History를 썼던 사람들의 개념을 보자. 개념-현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현실이 개념을 이끌고, 개념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 Cambridge School 당시 사람들의 사상사-현실사와 다름. 논쟁사 정리는 지성사와 같음.

개념사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표상주의 비판. 개념-현실 간의 관계 부정. Affirmative들의 new history를 쓰는 것과는 다름. 미시사이면서도 단절된 역사형태를 쓰는 것. 그렇게 작업을 할 필요가 있나? 뭔가 포스트모던과 모던을 종합한 인식체계가 가능할 것이다? 기존의 logic이 아닐 수도 있음. 꼭 언어가 아닐 수도 있고. 해체 속에 머무를 수 있나 질문.

사회로 구성된 나를 알면 사회를 전체를 알면 해결됨. 근데 라캉은 선험적 전제, the other가 나를 구성하는데 the other를 모름. 그 안에서 기본적. 구성된 전체가 나 이므로 상관이 없음.

최인호: 라깡. 이 사람이 상상계-상징계-실재계. 주체의 소외, 결여. 점점 더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다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봄. 잃어가는 과정의 이전이 뭔지? 그게 뭔 동물적 인 것?

전재성: 정신착란, 광기, 기호화되기 이전의 어린아이. 통째로 느끼는 느낌체계가 있음. 그런 기호로 내 의식이 규정되지 않았다면,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해결? Colletive보다 더 깊은 리비도적인 욕망을 논의

최인호: 라깡의 욕망은 인간의 욕망은 몸과 상관이 없나?

전재성: 생물적으로 process하지 않고 기호적으로 규정되는 부분이 있음. 욕망의 생물적 기반을 부정할 수 없고, 이를 스스로 생각하거나 process하는 것은 사회적 기호체계로 다시 무의식적으로 구조화되어서 이루어짐. 그 밑의 실재는 아무도 알 수 없음. 그것도 임상으로 안 것이므로 실제 그러한지 알 수 없음. 관찰, 최면 등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프로이드적 방법을 씀.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름. 철학이 풀지 못한 7대 과제 중 하나. 의식은 뭐냐? 융은 집합 무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있냐? 무의식이 진짜 있는지도 모름.. 소외, 기표에 의해서만 상징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발생적으로 가면서 분리

페미니스트들. 성은 수행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Pre-determined된 것임. 여성/남성. 기본적인 것은 다름. 그 역량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것 이외의 사회적 성이 결정되는 것 자체가 기호로 굳어지는 것인데 라깡, 프로이드들은 남성주의자임.

송지예: 자기 소외의 의미? 크면서 거울단계의 이미지가 상징계를 만나면서 깨짐. 커가면서 서울대에 들어가고 싶다. 더 공부하고 싶다, 유학가고 싶다라는 것이 상징계다. 나의 욕망이 끝없이 미끌어지는 것? 또 다른 상징계가 다가와서 가는 것. 상징은 미끄러지므로 결과적으로 내가 아닌 것임. 구조가 심어놓은 무의식인데, 그것이 나한테 서울대, 유학이라는 표상으로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욕망이 뭔지는 절대로 알 수 없음. 그래서 내가 계속 소외된다는 생각

전재성: 개인적으로 이를 사회에 대항해서 내 것을 찾는 것은 안 됨. 사회는 내가 되어야 풀리는데 그것이 아니면 안 됨.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 내가 될 수 없음. 인류 전체를 나로 만드느냐, 우주=나의 단계로 가냐?

최인호: 종교적으로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라고 착각해서 분절이 된다.

전재성: 보통 사람이 믿는 것임. 우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밖에 해결이 안 됨. 우리가 가진 학문적 지식으로 주체성에 대한 반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욕구와의 간극해결을 위해선 실존적 고민을 안고 살던지, 논리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이 종교적 가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음. 과학적 검증이 되기 전에? 부처의 뇌, 예수의 뇌처럼 간단한 일이라는 것이 해결되면 좋은데.. 논리적으로 그 과정을 전개해보는 작업이 필요함.

과학적인 언어로 설파 해야 하는데. 미래에 인지과학, 뇌과학자들이 보면 현재의 이런 고민하는 것들은 바보라고 할 수도 있음.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수 있나? 인간이 자아개념에 얽매여서 나오는 ‘증상’들을 없애는 작업들을 한편으로 해야 한고 인간의 기본적 평화를 만든 다음에 자아의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함. 국제정치는 가장 dirty job임. 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야 함. Totality, historicity는 버림. 이를 법칙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함. 학문-예술이 다 공동작업으로 가야 함. 방향성을 줘야 함. 포스트-포스트 모던이 나왔는데 자아초월의 우주의식적 문화조류가 나온다? 동양 텍스트도 중요함. 노자 등을 포스트모던적으로 분석해서 텍스트 내의 언어들 간의 차이 분석을 해보면 근대 텍스트와의 다른 문법이 도출됨. 이 사람들의 논리체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 학문, 예술, 이미지체계가 나뉠 것임. 혁명이라는 것은 class라는 것이 아님. 모든 사회의 분절들이 가능함. 그런 layer들이 폭력방지를 하는 것, 보편적 문법체계가 나온다면? 우리가 예술할 수도 있음. 우리가 예술 sensitive하게 만들어야 함. 몸이 논리화되면... 타자의 말을 논리적으로 process하지 감각적으로 느끼고, 공감능력이 떨어짐.

독도의 표상 방식도 마찬가지. Image를 만들고. 유럽정치에서의 표상정치가 심하다. Kriesteva는 페미니즘-폭력의 기표성 연구를 하는데 동아시아의 폭력사태에서의 표상들도 critical 하게 보려고 함. Case로 한국 제주 4.3사태를 본 것도 있음.